

## 팬들은 희망 품고 열정 외치는데...

# KIA 계속되는 무기력한 플레이

선수들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최선을다해야 진정한 프로

### 특&Talk

한화와의 홈경기가 열렸던 8일 3583명의 팬이 무등경기장을 찾았다.

구름관중을 몰고 다니며 경기장을 가득 채우던 KIA의 봄 명성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KIA의 무기력한 최근 행보와 하위권에 처져있는 두 팀의 경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수다.

4강은 이미 물 건너갔고 신생팀 NC의 긴박한 추격을 받고 있는 7위 KIA. 그럼에도 많은 팬이 가까이 발길을 했고, 이들은 다시 실망으로 발길을 돌렸다.

호남의 팬들에게 야구는 '힐링'이었다. 기뻐 웃고, 기대할 것도 없던 시절의 설움을 달래주던 희망이었다. 지금도 크게 다를 게 없다. 특별히 반가를 일도 재미있는 일도 없

는 지역민들에게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줄 6시 30분의 '기다림'이자 웃고 박수를 치며 시원하게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즐거움'이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팬 그리고 타이거즈가 좋은 타지역 팬들에게는 스포츠 이상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지난 주 잠실 구장 관람석에서 그라운드를 내려다 볼 일이 있었다. 무등경기장 만큼이나 익숙한 잠실 그라운드지만 기자석이 아닌 관람석에서 본 풍경은 사뭇 달랐다.

연승행진으로 불이 붙은 두산과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KIA의 승부. 이번 가을 중추점이 다른 두 팀의 승부였지만 3루에는 여전히 붉은 유니폼과 노랑 응원봉으로 무장한 팬들이 있었다. 허무한 역전 뒤 무기력하게 진행된 경기에도 공 하나하나에 3루는 끊임없이 들쭉들쭉했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 함성과 응원은 달라졌지만 공·수가 바뀔 때마다 1루와 3루팬들은 경쟁을 하듯 목소리를 높이고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 돌아오는 타석 중의 하나, 100여개의 공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에도 팬들은 희망을 품고 열정을 외친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은 팬들에게는 자부심이다. 선수들의 열정을 다한 플레이와 결과는 팬들의 자부심이 된다. 그들이 그라운드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익숙한 곳의 낯선 풍경을 보면서 '선수들도 관중석에서 그라운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수들이 간절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말·말·말

## "나지완 그만 떠들고 캐치볼이나 하자"

▲내가 던지고 싶더라니까= 지난 2004년 현대와의 한국시리즈 예기를 하던 선동열 감독, 당시 삼성 수석코치로 뛰었는데 경기가 9차전까지 가는 바람에 투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한 10년만 더해라=한화 김용용 감독, 프로야구 최고령 최환남이 한화 덕아웃에 인사를 하러 오자.

▲내년에 자주 나가야지=한화 김용용 감독, 지난 1일 넥센전 오심으로 감독 복귀 후 처음으로 항의하러 그라운드에 나갔으며.

▲KIA의 안치홍!=덕아웃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나지완, 안치홍이 훈련을 끝내고 들어오자.

▲돼지야 그만 떠들고 캐치볼이나 하자=차일목, 덕아웃에서 수다를 떨고 있던 나지완을 보고.

▲우리 중추의 후예들이야=유동훈, 웨이트를 하고 있던 포수 백용환과 이흥구를 가리키며. 차세대 안방마님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신에 포수가 장충고 후배라며.

▲집싸러 가야돼요=라커룸으로 향하던 이용규, 다음 주 어깨 수술을 하기로 해서 짐을 정리해야 한다며.

▲얼마 남지 않았어요=신종길, 규정타석 진입이 눈에 보인다며, 8일 현재 329타석에 들어가면서 규정타석(경기수×3.1)에 근접했다. 0.326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규정타석을 채울 경우 타격 상위권(손아섭 0.353, 이진영 0.334, 박용택 0.321)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 KIA, 신생팀 NC 추격 따돌리고 7위 수성할까

### 프로야구 전망대

프로야구 중간순위 (9월 9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111	65	46	0	0.586	0.0
2 삼성	109	62	45	2	0.579	1.0
3 두산	112	62	48	2	0.564	2.5
4 넥센	111	61	48	2	0.560	3.0
5 SK	106	54	50	2	0.519	7.5
6 롯데	107	53	51	3	0.510	8.5
7 KIA	107	46	59	2	0.438	16.0
8 NC	111	45	62	4	0.421	18.0
9 한화	108	34	73	1	0.318	29.0

거취는 미확정 상태다.

한기주 이후 이렇다할 마무리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올 시즌 4번 자리에서 만점 활약을 해준 나지완도 내달 7일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2년의 공백이 불가피 하다.

외국인 선수의 두 자리를 빼더라도 선발 구상도 쉽지 않다. 일단 송은범의 복귀를 신호탄으로 마운드 리빌딩이 시작했다. 송은범은 8월 1군 복귀와 함께 불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FA 자격 획득에 실패하면서 팀에 잔류를 하게 된 송은범은 앞으로 선발로 남으

시즌을 보내며 내년 선발 진입을 준비한다.

부진한 시즌을 보낸 서재응이 엔트리에서 빠지고 올 시즌 선발과 중간을 오갔던 임준섭을 비롯해 박지훈, 김윤동 등 신예 선수들도 선발후보로 테스트를 받는다.

유망주 집중 육성을 위한 작업도 진행됐다. 오는 12월 홍세한 타격 코치의 인솔 아래 교육리그 참가단이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리빌딩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참가 선수 명단에 변동이 생겼지만 5명의 유망주가 넓은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올 예정이다. 내년 구상의 시작점에 SK가 있다. KIA는 10일 군산으로 건너가 빌로우와 레이에스의 좌완 대결을 펼친다. 11일 군산 홈경기 12·13일에는 잠실로 올라가 1위 LG를 상대한다. 주말에는 휴식기를 갖고 16일부터 시작될 7연전을 준비한다.

9월 선수단은 휴식 대신 훈련을 선택했다. 리빌딩 체제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성적 고민을 던 것은 아니다. 신생팀 NC의 추격을 따돌리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KIA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32살 흑진주 세리나 US오픈 최고령 우승

### 아자렌카 꺾고 2년 연속 패권

여자 프로테니스(WTA)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US오픈(총상금 3425만 2000 달러·약 381억원) 2년 연속 패권을 잡았다.

윌리엄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길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빅토리아 아자렌카(2위·벨라루스)를 2-1로 꺾었다.

지난해 결승에서도 아자렌카를 꺾고 정상에 오른 윌리엄스는 1년 만에 아자렌카에게 똑같은 아픔을 안기며 자신의 5번째 US오픈 우승 트로피, 17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해엔 프랑스 오픈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1981년 9월생으로 이번 달 32살이 되는 윌리엄스는 US오픈 최고령 여자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이전까지는 1973년 31세55일의 나이로 우승한 마거릿 코트(호주)가 가장 많은 나이에 우승한 여자 선수였다.

호주오픈만 2차례 우승한 아자렌카는 US오픈 첫 우승을 노렸으나 불발에 그쳤다. 역대전적에서 윌리엄스에 3승12패로 압도당했으나 올 시즌 3차례 맞대결 가운데 2번 승리하며 자신감을 얻은 아자렌카였기에 아쉬움이 더욱 컸다.

한편 남자 복식 결승에서는 레안더 파에스(인도)-라텍 스테파넥(체코)이 알렉산더 페야(오스트리아)-브루노 소아레스(브라질)를 2-0(6-1 6-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캘린더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던 밥-마이클 브라이언 형제(미국)를 준결승에서 꺾으며 기세를 올린 파에스-스테파넥은 메이저 대회 두 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연합뉴스



## 스포츠 댄스 한마당... 리듬속의 그 춤을



지난 8일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빛고을배 전국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 및 제9회 광주 총장배 전국 생활체육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 프리(Pre) 아마추어 '라틴 스탠다드' 부문에 출전한 남녀선수들이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 댄스스포츠 경기연맹(회장 고영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내년 영암F1, 가을 아닌 봄에 열린다?

### 외신들 "4월 4일 상하이 대회 다음주 개최" 보도 전남도 "공식 통보 없었다" FOM측에 진위 파악

내년에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가을이 아닌, 봄에 개최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전남도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올 가을 F1(10월 4일~6일)을 치르고, 6개월 뒤인 내년 봄 새로운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F1조직위는 8일 "AP통신 등 외신들이 지난 6일 '해마다 10월에 개최됐던 한국대회를 내년에는 4월로 앞당긴다'

며 F1 2014시즌 일정 가안을 보도해 대회 운영사인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 측에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4월11일부터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리는 것으로 돼 있다. 내년부터 러시아 소치가 처음 F1을 개최하면서 FOM 측에서 한국 대회기간에 러시아에서 경주를 하고, 대신 한국은 4월 4일 중국 상하이 대회 다음 주로 개최 시기

를 옮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F1 관계자는 "현재 FOM 측의 공식적인 통보는 없고, 아직 개최 시기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에도 2차례 대회 일정 가안에 한국대회가 봄으로 잡혀있었다가 가을로 변경되기도 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회 가안은 각 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니고, 조율 등을 통해 최종안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전남도가 FOM 측과 대회 개최권 인화 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번 보도가 FOM의 '전남도 압박용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